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우리대학교가 교육부의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당당히 선정됐다. 지난 2 기에 이어 연속 선정의 쾌거이며 서울지역 소규모 대학으로는 우리가 유일했다. 이 모든 영광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 [관련기사 2 면]

한국성서대학교 '2021 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2018 년 제 2 기 평가에 이어 연속 선정 쾌거

▲ 평가감사실에 모인 교직원들이 선정을 확인하며 기쁨과 감사로 반기고 있다.

▲ 강우정 총장이 온라인 축하감사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의 '2021 년 대학기본역량진단 ' 평가에서 ' 일반재정지원대학 ' 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 2018 년 제 2 기 평가에 이어 연속 선정된 쾌거이다. 교육부는 8 월 17 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 일 가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9 월 3 일 확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오는 2022 년부터 3 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대학 혁신사업을 펼치게 된다. 학교당 지원 금액은 연간 평균 48 억여 원을 3 년간 받게 된다. 하지만 소규모인 우리 대학의 경우 연간 20 억원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대학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제 2 기 자율혁신사업과 바로 연계돼 대학중장기발전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파급 효과는 재정지원 여부보다 대학 신인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교육부의 정원 감축 계획과도 연결될 것으로 보여 대학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평가가 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4 년제 186 개 대학 중 25 개 대학은 진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머지 161 개 참여대학 중 136 개교가 선정되었고 25 개 대학은 최종 탈락했다. 특히 수도권 72 개교 가운데 성공회대학, 성신여대, 인하대학 등 11 개 대학이 고배를 마셨다. 한국성서대학교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유수한 대학들과 경쟁을 거친 결과이며 서울지역 31 개 대학 중 유일한 소규모대학이다. 개신교 계열의 신학대학들은 이번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미 선정된 대학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학교에서는 선정 발표 직후 유정선 일립교육부장의 사회로 전체 교직원이 참여한 온라인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다. 강우정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의 의 (義) 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한반도 복음화의 사명에 매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 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 이번 선정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신실한 복음전도자 양육에 최선을 다하여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사람도 흠모하는 대학 ' 으로 나가자 " 고 힘주어 말했다.

미니설교

인생의 나침반 – 사명 (베드로후서 1:10)

조현진 (성서학과 교수)

인생 살다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부로 살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제자로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어부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를 찾아와 부르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평생을 사도로서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편지에서 고백합니다. "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벧후 1:10)

사랑하는 여러분 ! 베드로후서는 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작성하고 얼마 후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부탁이자 최후의 유언이 "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 였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이 인생의 나침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

구성원들의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축하 축하 소리들

최은희 평가감사실장 '기독교 대학으로서 책임감 가져야'

2020 년 9 월 초부터 9 개월간 보고서 작성 , 2021 년 5 월 27 일 최종 제출 , 6 월 14 일 대면평가를 거쳐 8 월 17 일 재정지원대학 선정 통보를 받았다 .

세상 편견과 스스로의 한계와 싸워야 했다 . 이 시간동안 모두가 하나 되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학에 맡기신 사명과 무게감을 알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 최선을 다해준 연구 , 실무위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는다 . 대학들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 그럼에도 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것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책임감을 짊어지고 담대히 다음 걸음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여러 과정 중에서도 오직 기도로 함께 해준 교직원과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

이성아 교수학습센터장 '진짜 주님의 은혜다'

두 가지가 감사하다 .

하나는 이번 결과가 " 진짜 주님의 은혜 " 였다는 것 . 지난 1, 2 주기와 비교하며 ' 진짜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탈락할 수 있겠구나 '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 우리는 부족하지만 최고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단합이 잘 되는가 라는 것 .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 , 무엇보다 평가감사실에 감사드린다 . 모두 모두 고생 많으셨고 , 사랑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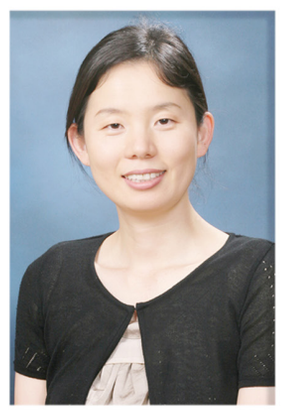
민찬양 교목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 '

이번 평가를 위해 구성원 모두 마음을 합하여 대면 , 비대면으로 수백차례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 기도의 열매는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이지만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였습니다 .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심을 인정하였고 , 무엇보다 우리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우리의 정체성은 ' 사람이 흠모하는 대학 ' 이기 전에 ,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학 ' 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유미나 교학팀장 '우리는 최고의 원 팀'

'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 결과를 듣자마자 목젖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 ' 하나님 감사합니다 .' 지난 9 개월의 힘든 여정 , 수백 건 자료와 데이터를 찾아 건네 준 교학팀원과 학과 조교 얼굴까지 떠오른다 . 진단보고서 30% 이상이 교학팀 영역 , 보고서마다 이들이 흘린 땀과 노고가 그대로 배어 있음을 나는 너무 잘 안다 .

그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협력의 짐을 기꺼이 나눠졌다 .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 그래서 해 냈다 . 우리는 최고의 원 팀이었다 . 내가 그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



안민혜 (영어 4) 학우 '우리 브랜드는 BIBLE'

우리대학이 드디어 ' 일반재정지원대학 ' 에 당당히 선정됐다 . 야호 !

지난 5 월 초 , 복음관 3 층 2 곳이 환했다 . 밤 10 시가 넘었는데 누가 밤늦도록 ? 이튿날 들었다 . 평가감사실 직원 선생님들이 평가준비 때문이라는 걸 . 그것도 매일 밤늦게까지 일한다고 하였다 . 잘 모르지만 고생하는 상황이 그려졌다 . 이후 나도 평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 .

요즘 세상은 더 혼탁하고 어둡다 . 그래서 우리 대학의 존재감이 더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 하나님께서 많은 교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와 진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셨다 . 우리 브랜드는 BIBLE 이다 . 하나님이 내려 준 사명 따라 내게 주어진 비전도 곰곰히 생각해 본다 . 어쨌든 , 오늘만큼은 기분이 무지하게 좋다 .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복음전도자」”

유정선 목사 , 개강예배 설교

▲ 유정선 교목실장이 개강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

2 학기 개강예배가 30 일 오전 12 시 로고스홀에서 유정선 교목실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 학우들은 코로나 방역 4 단계 지침에 따라 LMS 로 참석했다 .

유정선 교목실장이 ' 생명을 보존하는 길 '(겔 3 장)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하나님은 에스겔을 말씀 전할 파수꾼으로 불러 사용하셨다 . 죄인 된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곧 생명과도 직결된다 .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생명을 구하는 복음전도자로 이곳에 불렀다 . 전도는 우리대학을 설립한 목적이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이유이다 . 성서 학우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자들이라며 세상 끝날까지 이를 전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사명을 힘차게 이뤄내자고 말하였다 .

강우정 총장은 권면을 통해 우리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 , ' 한반도의 복음화 ' 라는 꿈을 이룰 일꾼 즉 , 「복음전도자」 를 양성한다는 우리대학의 교육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서 재 승인하시는 것이다 .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대학은 예수 믿는 대학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며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당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라는 뜻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강 총장은 이어 4 학년 졸업반 학우들에게 "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잘 준비된 일꾼들이다 . 세상에 당당히 도전하라 " 고 주문했다 .

“한국 신학대학들 중심에 BRC 가 있다”

BRC 개강 예배서 강 총장 강조

▲ 강우정 총장이 BRC 개강예배에서 격려사로 권면하고 있다 .

2 학기 개강과 함께 가장 먼저 시작되는 수업인 BRC 가 31 일 오전 8 시 천마홀에서 개강예배를 가졌다 .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우들은 LMS 에 접속해 참여했다 .

성서학과 김정원 교수가 ' 살아 활력 있는 말씀 '(히 4:12~16) 으로 말씀을 전했다 . 김 교수는 " 말씀은 역동성과 살아있는 생명력이 가득하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우리 영혼을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를 판단케 한다 . 2 학기에도 BRC 에서 성경을 읽고 ,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확실한 길잡이라고 말했다 . 그는 "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중에서 성공한 왕이 처음 한 일은 예외 없이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은 일이었다 " 고 말하면서 오늘 BRC 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우들은 성공의 주인공이라고 축복하였다 .

그는 성서학과 중심에 BRC 가 있고 성서대학 중심에 성서학과가 있으며 한국의 신학대학들 중심에 우리 한국성서대학교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BRC 학우들의 책임이 중대함을 강조했다 .

" ' 한국 ' ' 성서 ' 의 학우들이여 ! 이제는 잠에서 깨어 ' 회복 ' 해야 할 때입니다 "

2 학기 부흥사경회
강사 반세호 목사

▲ 반세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2 학기 부흥사경회가 8 월 31 일부터 9 월 3 일까지 로고스홀에서 진행되었다 . 본교 동문인 반세호 목사가 (49 회 , 지구촌교회 젊은이목장 센터장) 가 ' 회복 ' 을 주제로 부흥회를 인도하였다 . 학우들은 LMS 로 참여했다 .

강사는 4 일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 나가는지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다 . 느헤미야가 가졌던 민족에 대한 눈물과 소명감 ,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소통 , 그리고 현실로 닥치는 고난을 헤쳐 나가는 용기 있는 모습을 잔잔하게 그려갔다 . 강사는 느헤미야가 받았던 소명과 성서대 학우들의 소명을 은유적으로 대비시켰다 . 그는 ' 한국 ' ' 성서 ' 라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소명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 또 이 대학이 많은 신학대학을 제치고 ' 일반재정지원대학 ' 에 선정된 것도 학우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 ' 회복 '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강조하였다 .

첫째 날 :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청년 (느 1:1~5)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겪는 시대적 고난과 아픔에 절규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였다 . 학우 여러분은 온 몸으로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와 참회를 통해 시대의 아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 말씀에 근거한 뜨거운 기도로 변화시켜 주의 부르심에 따른다 .

나를 던져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과 소명인 한반도복음화의 실천을 다짐하는 성서의 지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둘째 날 :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느 2:1~8)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부담감 , 시대에 대한 아픔 .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다 .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을 사명으로 삼고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쓰임 받을 수 있었다 .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 ? 첫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 신실하신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다 . 두 번째 철저한 준비다 . 계획은 우리의 몫이며 하나님이 인도 하신다 .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신다 .

셋째 날 : 늙은 사자는 목소리만 크다 (느 4:11~15)

늙은 사자는 목소리만 크다 . 삶의 과정에는 수많은 유혹과 훼방이 다가올 것이다 . 그들은 늙은 사자에 불과할 뿐 상대가 되지 않는다 . 하나님만 붙잡고 꿈을 이뤄가야 한다 .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함께 (아니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셨다 .

산발랏과 도비야의 엄청난 위협에도 느헤미야는 꿈쩍도 않고 성벽을 쌓아 나갔다 . 학우들에게 성벽 쌓는 일은 무엇인가 ? 그것은 매일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다 . 신앙교육과 신앙훈련 , 전공수업 . 실습 등 주어진 모든 과업에 최선 다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

넷째 날 : 나를 지탱해주는 힘 (느 8:8~10)

결국은 말씀이다 . 성벽 쌓기를 완성한 백성들은 느헤미야 8 장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 모든 힘의 근원은 말씀이었다 . 한국성서대학교 이름 안에는 한반도 복음화를 향한 비전이 담겨 있다 . 복음화의 동력은 ' 성서 ' 이다 . 성서는 개인과 사회와 나라를 새 땅 , 새사람 , 새 삶으로 열매 맺도록 한다 .

말씀을 붙잡으라 . 이 대학에 BRC 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 말씀에 대한 갈증과 경외함으로 그대들은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뤄 가심을 믿고 강하고 멋진 청년 느헤미야가 되어라 .

입시전쟁 개막
원서접수 9 월 10 일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강력한 홍보 포인트

2022 수시원서 접수가 9 월 10~14 일까지 5 일간 진행된다. 이번 입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령인구 감소로 지원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대학에 새로운 혁신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2022 년 입시경쟁률로 드러나게 된다.

이번 우리대학의 홍보 포인트 No.1 은 교육부가 9 월 3 일 발표한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이다. 유수한 대학이 몰려 있는 수도권 (일명 '죽음의 조') 에서 소규모 대학으로서 당당히 선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서 교육의 내용과 질 등 경쟁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 외에도 졸업생 취업률 (서울지역 6 위 71.6%) 이 강점이며, 인서울 (in Seoul) 이라는 점과 인서울에서도 편리한 접근성이 유리한 점인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부모들의 염려는 대학가의 음주와 흡연문제인데 우리대학은 이에 관한한 청정지역이라는 점도 매력 포인트이다. 다양한 장학금 제도와 함께 성서학과 신입생에게는 첫 학기 등록금 전액을 성서대학교회가 부담한다. 본인 부담금은 없다. 단 국가장학금을 포함 장학금 수혜 해당자는 해당 장학금을 먼저 받은 다음 남은 금액을 교회가 부담한다.

수시 모집인원은 5 개 학과 205 명이다. 학생부 위주 정원 내 모집은 성서학과 50, 사회복지학과 35, 영유아보육학과 36,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0, 간호학과 30 명이다. 정원 외로 24 명을 모집하며 학과별로 농어촌, 기초생활, 특수교육대상자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으로 선발된다.

신지수 입학팀장은 신설된 '교과성적우수자전형' 은 면접비중이 20% 인데 면접부담을 갖고 있는 학우에게 적절하다고 말하였다. 성적이 불안하면 적게 반영되는 일반학생전형이나 KBU 인재전형을 참고하면 좋겠다. 간호학과 경우 일반학생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2 개영역 평균 3 등급) 통과를 자신할 경우 일반전형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수시입시지원 문의 : 입학팀 950-5403

무명 , 학교발전기금 1 천만 원 후원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후원자가 학교 발전에 사용해 달라며 무명으로 일천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그는 " 학교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복음전도자 양육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 전체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 이번에 '일반재정지원대학' 에 선정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고 말했다. 이어 " 학교 사랑의 마음을 갖고 후원할 수 있도록 여건과 마음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고 말하였다.

한국성서대학교『발전후원금』 (2021. 8)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21,373,353원)

무명	10,000,000	강명희(동문)	1,000,000	영천교회(동문)	700,000
김연수 (미주 동포)	5,838,353	김미선(교직원 가족)	1,000,000	유윤상(동문)	500,000
베델성서선교회 (동문)	1,300,000	반종원(법인이사장, 동문)	1,0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31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3,720,000원)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일 반
10구좌 박승호	1구좌 진달래	3.5구좌 박은영
		2구좌 행복한 교회
		1구좌 김정환

일시납 누계 (3.1~8.31) 133,001,104원 **약정자 누계 (3.1~8.31) 208구좌 22,800,000원**

‘와글와글 독서클럽’ 혁신 4 기 모집

‘다독다독 독서멘토링’ 혁신 9 기도
독서의 계절 , 지식의 저변 넓히는 계기로

도서관은 2 학기 개강에 맞춰 학우들의 독서의욕 증진을 위한 ' 와글와글 독서클럽 ' 혁신 4 기와 ' 다독다독 독서멘토링 ' 혁신 9 기를 모집한다 .

독서클럽은 온라인 줌으로 과정이 진행되며 9 월 13 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 총 4~6 팀을 모집하는데 각 팀별 (4~6 명) 상호 토론 방식으로 12 월까지 진행된다 . 팀별 최소 매월 1 권을 읽고 서평과 독서토론 일지를 게시판에 업로드 할 수 있다 . 독서클럽 멤버에게는 5 만 마일리지와 100 크레딧이 제공되는 혜택도 얻는다 .

' 다독다독 독서멘토링 ' 도 온라인이며 독서클럽과 모집 기간은 동일하다 . 개인별로 필독서 (1~2 권) 를 선정하고 매일 정한 시간에 스스로 탐독해 간다 . 2 주간 진행되며 독서일지 작성으로 서평능력과 독서습관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 참가자에게 3 만 마일리지와 크레딧도 제공된다 .

학교 입학 후 현재까지 독서클럽과 멘토링을 활용해 왔다는 김평안 학우 (사복 3) 는 여건이 가능하면 두 가지 다 가입을 권유하였다 . 친구들과 책으로 다양한 사고와 비평을 공유할 수 있고 독서습관과 서평력 향상의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 지식 충전으로 자신의 내면이 확장되는 과정을 즐기는 것도 큰 기쁨이라고 덧붙였다 .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 관련 문의 : 950-5450

2 학기 수업운영 원칙 비대면으로 시작

일부 실습수업 예외
학교는 대면수업 적극 협조

교학처 (처장 김정원) 가 2 학기 개강과 함께 수업운영 원칙을 발표했다 .

2 학기 수업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 단계 적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원칙이다 . 이번 수업운영 원칙은 9 월 24 일까지이며 , 4 주를 기본 단위로 운용한다 .

일부 실습수업의 경우 대면 필요성이 요구되면 그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여 학과 자체별로 검토후 대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일반 수업의 경우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수자와 수강생 동의를 전제로 학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 시험은 중간 또는 기말고사 중 대면 시험 1 회를 필수로 치를 수 있다 .

백신 공결제도도 운영된다 . 백신접종 당일 및 익일을 출석으로 인정하는데 예방접종확인서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할 때 가능하다 .

대면수업 진행의 경우 , 수업 당일 한국성서대학교 앱을 통해 건강상태 자가진단 후 정상이면 등교할 수 있다 . 반대로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학과사무실 혹은 담당 교수와 연락해야 한다 . 이밖에 학교 출입 시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며 미착용 시 수업 참석은 할 수 없다 .

수업과 관련된 자세한 상황은 학습관리시스템 (LMS) 의 수강 강좌별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

개교 70 주년 빛내 줄 성서 동문을 찾습니다

밀알의 삶을 살아가는 성서인의 행로

▲ 1952 년 개교 당시 1 회 신입생과 교수진 (앞줄 왼쪽에서 5 번째가 설립자 강태국 박사)

2022 년은 우리대학 개교 70 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 1952 년 개교 이래 우리 동문들은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복음전도자」 로 국내외에서 밀알정신의 삶을 실천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여정을 지속해 오고 있다 .

코코스 편집부는 각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 70 명을 발굴하는 코너를 기획하고 있다 . 성서대만의 강고한 DNA 를 가지고 살아온 동문들 삶의 발자취를 통해 성서인의 선한 영향력을 소개함으로서 후배들에게 복음전파의 또 다른 행로를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각 학과 선후배 동문들의 추천을 기다린다 . 자기 추천도 환영한다 .

* 기간 : 2021 년 9 월 1 일 ~12 월 31 일
* 연락처 : 950-5513
* 이메일 : 4173651@hanmail.net
* 담당자 : 이강동

2021 밀알훈련 개최 내년 1 월로 연기

거리두기 4 단계에 맞춰 , 학과별 하루씩

일립교육부 (부장 유정선) 는 2021 밀알훈련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 단계 연장에 발맞춰 2022 년 1 월로 일정을 변경한다고 공지하였다 . 훈련 주관부서인 신앙훈련과는 내년 훈련을 각 학과별로 하루씩 진행하며 대상자는 21 학번 (신 · 편입생) 과 2022 년 2 월 졸업예정자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

1 월 10 일 (월)	1 월 11 일 (화)	1 월 12 일 (수)	1 월 13 일 (목)	1 월 14 일 (금)
성서학과	사회복지학과	영유아보육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 학과	간호학과

2021 년도 제 5 차 이사회

2021 년도 제 5 차 이사회 (반종원 이사장) 가 지난 15 일 일립관 101 호에서 대면 및 온라인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이사회는 이사회 회의록을 1 년 동안 공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일부 수익용 부동산의 처분 및 구입을 허용하는 안건과 법인 및 부설기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

김태규 교수에 근정포장

▲ 김태규 교수 (왼쪽) 가 정부를 대신한 강우정 총장으로부터 근정포장을 받고 있다 .

8 월 31 일 정년퇴임하는 김태규 (기초교육원) 교수가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받았다 . 전달식은 8 월 31 일 채플 후 진행 되었으며 강우정 총장이 정부를 대신해 전달하였다 .

포장 공훈에는 교육자로 재직하는 동안 헌신적 봉사로 국민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수여한다고 밝히고 포장증과 근정훈장 , 부상품이 수여되었다 . 김 교수는 우리대학에서 지난 1990 부터 31 년간 철학 과목으로 학우들과 함께 하였으며 8 월 31 일자로 정년퇴임하였다 .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17호

상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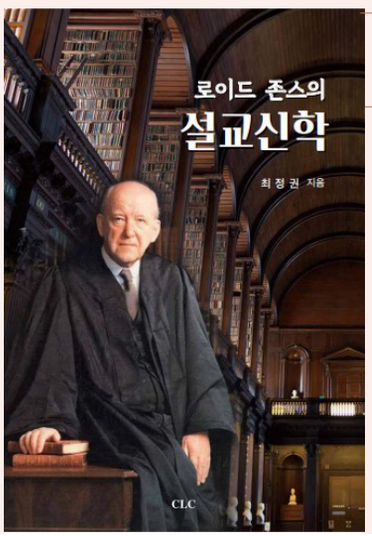
프리다 칼로 (Frida Kahlo, 1907–1954), 작은 원숭이가 있는 한 자화상 1945 년

http://kid.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4/2015051402995.html

상처 단어에 떠오른 화가는 멕시코 여류 화가 프리다 칼로입니다. 22 세 프리다는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당대 바람둥이 42 세 화가 디에고와 결혼합니다. 그는 6 세 때 척추성 소아마비로 한 쪽 다리가 짧아졌고 짧은 다리를 감추느라 항상 긴 바지를 입었습니다. 초등학교 2 학년 때 프리다와 같은 병에 걸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담을 따라 걷는 그녀의 늦은 걸음 뒤로 못된 남학생들이 그녀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며 조롱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만난 다른 프리다였습니다. 그에게 '나무다리 프리다' 별명이 붙어졌고 그녀는 자신의 다른 삶에 눈을 뜨게 됩니다. 18 세 때 버스 사고로 긴 쇳덩이가 아이를 잉태해야 할 복부까지 꿰뚫었고 깨진 척추와 골반을 일으키느라 32 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이후 악화된 건강 때문에 일곱 번의 척추 수술. 이혼으로 끝난 결혼과 거듭된 수술로 그녀는 깊은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그녀 그림은 자화상이 많습니다. 남긴 작품 143 점 중에 55 점이 자화상. 오늘 자화상에는 4 명의 작은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그녀가 가르쳤던 학생들, 그들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보다 검게 색칠한 그녀의 짙은 눈썹에 시선이 갔습니다. 여자보다 남성에 가까운 자화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갖고 싶어 했던 욕구의 표현입니다. 실제 그녀는 양성애자였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의 팔은 매우 길어 보이고 프리다 팔에 앉은 원숭이가 유난히 커 보입니다. 원숭이들 눈은 보는 방향이 각기 다릅니다. 머리 쪽 원숭이가 몸보다 커 보이는 잎 안에서 머리만 내민 채 유난히 어둡습니다. 자유롭게 다녀야 할 원숭이가 어떤 이유로 프리다 주변에 있는지 그림은 말이 없습니다. 어쩌면 원숭이가 평생 수술에 시달려 왔고 세 번 유산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녀에게는 자신의 태(胎)에서 빛도 보지 못한 채 죽은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상처가 만들어낸 생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이 들어 올 때만 생명이 됩니다.



최정권 목사「로이드 존스의 설교신학」출간

최정권(성서대학교회 담임) 목사가「로이드 존스의 설교신학」을 출간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20 세기 강해설교의 거목으로 불린다.

책은 로이드 존스의 전 생애를 바탕으로 설교신학의 시대적 연원에까지 깊숙이 탐조하면서 이를 현장 목회와 접안시켜 낸다. 웨일즈 부흥 운동과 사상을 통해 위대한 설교자로 우뚝 서도록 개입한 성령의 이끄심도 흥미롭다. 현란한 치장이 아닌 설교의 정수를 포착, 결론까지 손수 안내해 가는 저자의 진정성이 행간에 가득하다.

로이드 존스 생애와 설교신학에 관한 고찰, 목회와 설교학 등으로 설교 거목의 신학적 시선을 함께 새겨가는 기쁨이 있다.

「로이드 존스의 설교신학」/ 최정권 / CLC / 210p / 11,000 원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새로운 허들(hurdle)

2021 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우리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고라는 72 개 대학이 포진하고 있는 소위 '죽음의 조' 수도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아무리 겸손을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결과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그 기도의 전열에 함께 해 주신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은희 총괄위원장을 축으로 집필위원, 실무위원들이 밀알정신으로 똘똘 뭉친 절묘한 크리스천 팀웍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성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축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육부는 평가를 겨우 끝내고 숨을 몰아쉬고 있는 대학들 앞에 새로운 허들(hurdle)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교육부 2021.5.20) 이 그 하나 입니다. 이 안은 그동안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을 대학주도의 개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학은 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구조개혁의 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그 성과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교육부의 컨설팅 혹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자율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의 구조개혁 작업이 교육부의 기준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지원 중단을 비롯 제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육부가 보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학생정원입니다. 대학이 필요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축소)하라는 것이고 학생들이 수요가 과연 따라 오는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정기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계획은 아직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그때그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어떤 폭탄이 떨어질까 두렵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를 의지합니다. 어디가 되었던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직원 컬럼
진달래 대리 (사무관리팀)

생명을 돕는 하나님

2020 년 봄날 새벽, 내 몸에 산통이 느껴졌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남편이 끓인 전복라면을 먹고 병원으로 향했다. 대문을 나서면서부터 두려움과 설렘으로 마음이 복잡하였다. 병원에서 유도촉진제를 맞고 침상 위에 누웠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겪는 출산의 문 앞이었다.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낸 후 가장 궁금했던 아이의 첫 모습과 마주하였다. 내겐 역사적인 그 순간, 정신이 너무 없었고 얼떨떨했던 것 같았다. 돌이켜 보니 열 달의 기다림과 모든 고통을 일시에 멎게 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새 생명을 갖는 건 굉장한 축복이며 은혜이다. 그러나 나에게 임신기간은 떠올리기조차 두려운 날의 연속이었다. 배가 불러오며 찾아온 임신소양증(가려움증) 때문. 밤마다 가해 온 가려움증은 나를 처절하게 몰아 붙였다. 온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긁어야 했다. 내게 밤은 또 다른 고통이었다. 울고 불며 어둠의 시간을 버텼다. 어떤 날은 환도가 아파 걷는 것조차 두려웠고 어렵게 걸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전신을 쥐어짰다. 우스갯소리로 주변에 임신하며 욥과 야곱의 고통을 다 경험해 본다고 말하였다. 낳기 직전까지 엄마처럼 진통 끝에 수술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나를 두렵게 했다.

그 아기가 지금 16 개월째 됐다. 아직도 아이를 기르는 초보 단계, 요즘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차라리 편하다'란 말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두려워하던 것들을 나는 이겨냈고 잘 감당해 내고 있는 중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힘든 순간마다 도와 주셨다. 내게 허락한 것을 감당하도록 선한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인생 여정에 두려운 순간과 마주한 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하나님은 내 믿음 크기를 넘어 변함없이 선하시다. 자녀를 고통 속에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언제나 돕길 원하며 실제로 돕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

오늘도 천진난만한 아이 얼굴에서 천국을 그려본다.

교수 컬럼
안현미 교수 (간호학과)

소명 : 내면의 기쁨과 세상의 요구가 만나는 지점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소그룹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리더 목사님께서 파커 파머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 올 때 (Let Your Life Speak)" 도서를 추천해줘 읽게 되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읽다가 페이지가 더해지면서 소명, 사명에 대해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됐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나는 무엇인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큰 짐을 내려놓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자신에게 되묻곤 한다.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등으로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많은 고민을 주고받는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내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는가? 혹시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주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맞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 책 저자가 본인 삶의 소명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그는 자신의 내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삶이 아닌 바깥에서 밀려들어오는 삶 위주로 살고 있었음을 고백하였다. 나는 이 대목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그렇다. 우리 대부분은 사회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다.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더 두고 그걸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다보니 내 안에 이미 부어주고 계신 주님 선물은 애써 등한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소명에 대한 질문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내가 타고난 본성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외래교수 컬럼
이지용 교수(환경과 인간)

빛을 통해 묵상하는 인간의 한계

아이슈타인이 탄생하기 이전 까지만 해도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발견한 상대성이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연결 되어 있고 물질과 에너지는 등가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을 통해서 이 상대성 이론의 단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빛과 더불어 상상하면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자연의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빛이 피조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법칙 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공간과 세계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전제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낮춥니다. 그 증거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되며 물체의 길이는 짧아집니다.

사물의 고유한 특징인 시간과 길이는 빛의 속도에 순종하기 위해 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빛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탄다면 지구에서 의 100 년이 우주선에서 1 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를 가지면 시간 을 통제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 정지한 타자에 비해서 더 오래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인간의 수중에 통제될 수 없는 한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물체의 질량이 점점 증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주선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내면 낼수록 우주선의 무게는 점점 커져서 그 우주선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속성을 묵상할 때 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임을 알게 됩니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설렁탕 먹는 법

오늘은 설렁탕 먹는 법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먹는 것에 대해 두 가지 관점으로 제공합니다. 하나는 배를 신으로 삼는 인생관입니다. 예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사고 팔며 결혼을 인생 전부로 아는 이들의 허망한 종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관점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8:55) 사람이 먹는 것은 삶의 증거이며 시작입니다. 솔로몬도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 선물이라 했습니다.(전 8:15)

설렁탕이 나오면 식사 기도를 하는데 국물 냄새가 성찬을 기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 뜨는 순간 코로 밀고 들어온 진한 고기국물에 원형으로 잘게 자른 파를 국물 위로 수북하게 넣어 줍니다. 어릴 때 마당에 쌓아 놓은 무 더미 위로 눈이 쏟아진 것처럼 … 제 단골 설렁탕집은 40 년 전통인데 국물에 국수를 미리 넣어 나옵니다. 탕 안 국수와 하나를 더 시켜 둘을 하나로 만들고 막 넣은 생파가 섞이도록 합니다. 저는 깍두기보다 김치를 즐기며 김치를 가위로 자르는 흉악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김치는 국물 안에서 이로 잘라야 하며 가위로는 아닙니다.

국물에서 막 건져낸 국수 위로 긴 김치를 싸서 입안에 조용히 밀어 넣습니다. 크고 작게 한 입씩 씹은 후 두 번째 젓가락이 다른 국수를 올려 입안 맷돌질이 그 횟수를 더하다보면 국수편이 끝납니다. 국수를 흡입 후에 밥 담긴 공기를 두 손으로 흔들면 공기사이로 공간이 생깁니다. 국물에 부울 때 밥풀 하나 없이 국수 빈자리를 밥이 대신합니다. 설렁탕 고기를 수저 위에 올려 놓을 때 밥알 위로 침대에 지친 인간의 몸처럼 쳐져 있을수록 맛있는 고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고기가 두 겹으로 찢긴 옷자락처럼 나눠 있다면 금상첨화일 겁니다.

설렁탕은 씹어 먹지 않고 설렁설렁 먹어야 합니다. 설렁설렁하다는 말은 가볍게 진행한다는 의미로 더운 김 불어가며 고기와 밥알도 가볍게 씹어야 그 맛이 납니다. 입안 맷돌질이 고기의 육즙을 만드는 동안 밥알이 국물과 목안으로 술술 넘어갈 때 진정한 설렁의 맛이 납니다. 그렇게 먹다보면 맑던 설렁국물은 김치 국물과 입안의 침으로 그 색이 변합니다. 식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한 국물을 양 손으로 들고 후르르 마시면 바닥에 밥알이 보입니다. 밥알을 수저로 먹을 때면 아쉬움에 바닥을 긁게 됩니다. 귀국 4 년째, 여러 곳을 다녔지만 역시 옛날 먹었던 설렁탕집이 제게는 모국의 맛입니다. 그래서 새 길도 가지만 옛길을 잊지 않게 됩니다. 더운 여름 설렁탕 한 그릇 어떠세요.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86

익어 가는 가을 _ 이해인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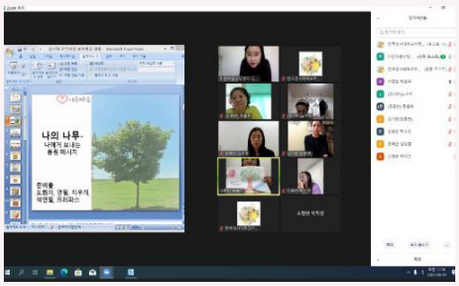
말이 필요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https://cafe.daum.net/ljh50831/LCYS/552?q=고마리꽃&re=1

'소 발자국에 고인 물도 먹는다'는 맑고 깨끗한 가을, 햇빛이 내려앉은 자리마다 단풍이 들고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간다. 빗방울 내려앉은 자리에는 어느새 나뭇잎 지고 풀벌레 울음 진 자리마다 가을이 깊어간다. 솜털을 밀어내며 갈대가 피어나고 여린 마디 밀어내며 여뀌도 피어난다. 물 언저리 후미진 곳 고마리 며느리밑씻개 며느리배꼽 미꾸리낚시... 가을 풀꽃이 볼그레 열매를 익혀간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듯 우리도 굳건하고 성실하게 익어갈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익어 넉넉한 베품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며 돌아보는 가을 강변 오후!

대학어린이집____미술치료



▲ 학부모 대상 온라인 미술치료교육이 진행 중이다.

대학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5 일 실시간 화상(ZOOM)을 통해 통합유아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술치료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이은마음아동청소년상담센터 김지나 미술치료사가 이끌었다.

먼저 가정에서 아이와 참여 가능한 미술치료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고 학부모 스트레스 정도와 해소방법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코로나 19 로 가정에서 지내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 미술을 통해 자녀와 소통하는 방안도 의미가 있었고 색상과 디자인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심미적 관점 에 대해 접근한 것도 좋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대학어린이집은 부모 자녀간의 심리와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을 계획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사랑반 김혜선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____여름철 김치 지원

▲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해 줄 김치가 통 안에 담겨 있다.

이번 여름은 코로나와 열대야까지 겹쳐 집단급식소가 중단되면서 지역민에게 제공해 온 식사 한 끼마저 대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전달해 준 김치가 동이나 추가 요청 문의가 끊이질 않았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복지관은 온라인(카카오 같이 가치)과 오프라인(지역주민)캠페인을 진행, 직접 기부 260 명과 참여기부자 5,000 여명의 후원으로 총 3,642,400 원을 모금했다. 이를 가지고 후원금으로 식생활에 어려움 겪는 저소득 448 세대에 김치(국내산) 5kg 을 지원할 수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는 자원봉사자 17 명이 직접 배달하였다.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어려움에 민감히 반응하고 신속히 대응해가는 책임의식을 충실히 이행해 갈 예정이다. [**문유나 사회복지사**]

꿈빛어린이집____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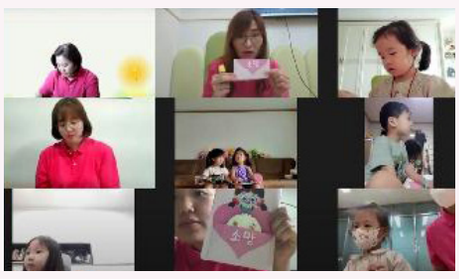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이 화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25 일, 꿈빛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학부모 10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신덕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훈육에 관한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김 원장은 먼저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 관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녀가 성숙한 인격체로 잘 성장하도록 눈높이에 맞는 소통, 감정에 의한 체벌보다 이성에 의한 훈육, 섬김의 의식이 교육방법에 잘 녹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사례를 각자의 경험 속에 조명해 가며 교육의 본질에 다가서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훈육 사례를 통해 부모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해 본 후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양육하는 방법을 살펴본 시간이 되었다.

[**초롱반 김태연 교사**]

성서대학교회____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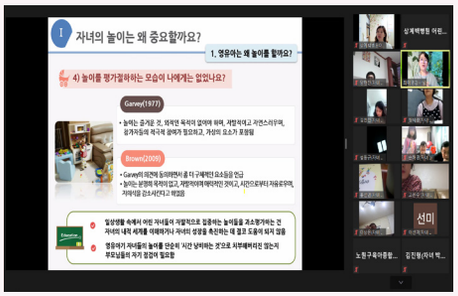
▲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자료 화면

성서대학교회는 예정된 8 월 여름 성경학교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교사와 어린이들은 작은 온라인 창을 통해 주님이 부어주는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다.

우리 죄를 대속하며 십자가의 굴레를 짊어진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마음속에 새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함께 모여 예배를 못한 건 안타깝지만 모든 환경에 은혜를 부어주어 감당케 해 주셨다.

일반 예배는 지난 9 일 조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좌석 수 10% 인원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요성서강해와 금요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문을 열고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주께서 코로나를 종식 시켜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는 회복의 날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____부모양육 점검교육



▲ 학부모에게 자녀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화면.

지난 13 일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는 '자녀 놀이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 제목으로 학부모와 백병원 교직원 대상의 온라인을 통해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자녀의 놀이가 왜 중요할까 ?' '부모, 자녀 놀이태도 점검하기' '자녀 놀이에 참여하기' 내용으로 이어졌다. 학부모 20 명이 참가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생활습관과 강의내용을 사례와 비교분석하며 상호간 긍정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도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 모두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나타냈다. 학모들은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드러냈고 매회기 교육이 끝난 후 "아이와 공감대를 더 넓히고 아이 양육에 많을 도움이 될 것 같다" 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푸른반 이수현 교사**]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____어린이 소방 안전교육

▲ 소방안전교육에 참여중인 영유아들 모습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0 일 노원구소방서와 비대면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지역사회 체험이 어려운 어린이집 유아들을 위해 기획되었다. 먼저 소방관과 실시간 화상으로 소통하며 화재 발생시 대처법과 주의사항 등을 조모조목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소방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화재진압용 소방용품에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중도까지 올라갔다.

아이들은 교육을 마친 후 화재와 관련한 질문도 가졌다. 일상생활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방법과 삶의 과정에서 실천해 보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열정파도 있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호응과 반응이 높았으며 효과를 감안, 9 월에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다.

[**보육전문요원 김슬아**]

상계5동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____8 월의 물놀이

▲ 영유아들이 야외에서 물놀이를 신나게 즐기고 있다.

지난 8 월, 상계 5 동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만 1 세와 4 세반 물놀이를 진행하였다. 매년 풀장에서 물놀이를 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물풍선 놀이와 컵에 물 옮기기 등의 놀이를 가졌다.

만 1 세반은 대야에 물 받아놓고 물풍선의 말랑한 감촉과 벽에 물풍선을 던져 터지는 걸 관찰하였다. 만 4 세반은 교실에서 가져온 컵에 물을 담고 햇빛에 말라가는 텃밭 식물에 물을 주는 과정을 함께했다. 물풍선을 던져 시원함을 느꼈고 뿌리는 물 밑에 무지개가 생기는 것에 호기심도 드러냈다.

유아들은 코로나로 야외 풀장놀이를 못했지만 물과 관련된 놀이로 잠깐이지만 시원함을 체험하고 교육에도 효과를 느껴본 시간이 됐다. 유아 모두가 이번 물놀이에 대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며 잠시나마 '여름' 의 시원함을 경험한 추억을 쌓았다. [**예쁜꽃잎반 유정현 교사**]

늘사랑어린이집____집에서도 놀 (면서) 자 (란다)!

▲ 자녀들 집으로 배달된 놀이키트 모습이다.

늘사랑어린이집은 코로나 19 로 가정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놀이키트 부모교육에 참여하였다.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의 클로버 부모교육이다. 온라인 수강 후 '꼬마 어부 낚시세트' 놀이키트를 지원받아 부모와 자녀가 놀이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온라인 부모교육은 '멋진아이 골든벨', '중립언어로 말하기', '나의 대화신호등 알아보기' 와 'oh no 대화, oh yes 대화' 등을 수강하는데 학부모 만족도가 예상보다 높았다. 제공된 놀이키트는 집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어 좋았다는 등 긍정적인 의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호응이 높은 클로버 부모교육 '아이마음 헤아리기' 도 수강한 후 토마토 고추장 만들기 키트로 가정에서 놀이하도록 지원해 갈 예정이다. [**즐거운반 윤영숙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1년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281만원(운영&장학)	김미선	100만원(운영)
강우정.강진(총장)	1,003만원(운영)	반종원(이사장)	100만원(운영)
김연수	584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경성교회	280만원(장학)	장현진(영유아보육학 교수)	100만원(운영)
한국라이온스	2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강정민 구본길 김도훈 김승희 박종주 송영자 심인자 심희남 오채엽 우현아 이도훈 이진리 한상장 황선명
2구좌 김중재
3구좌 최은희
4구좌 신은진
5구좌 최경환
10구좌 김장교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이동기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진달래 황은숙
100구좌 김미선

부설기관
5구좌 이인경

성서대학교회
13.8구좌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구좌 정혜란

일 반
1구좌 류계현
2구좌 정주아
3.5구좌 박은영

단체 및 기관
1구좌 맘키즈푸드
2구좌 (주)삼삼전기관리공사
3구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김시내 정다운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해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성호 고재민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김가영 김다솔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순덕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현 김정례 김정은 김정희 김준우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송 김현정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문홍 박수진 박순임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은경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필종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변지윤 서규원 서미희 서유미 서 융 서은숙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원복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성경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오채엽 오흥복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광석 이권호 이근중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종근 이주희 이지성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해성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장순호 장윤국 장익봉 장익심 장희남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소연 조수빈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은별 조은화 조차현 조태환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예슬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혜우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정심 황승호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고성주 구연민 구진경 국소영 길득희 김미나 김미향 김민아 김복녀 김성애 김성훈 김순녀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예진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인화 김재원 김정복 김종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재송 백연옥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나은 송만호 송인성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안선례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의숙 윤광길 윤서희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우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한나 이현우 임수경 임은희 장재경 장재원 전영희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조혜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홍진옥 홍혜주 황인숙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고은영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동교 김석환 김세련 김지애 문순일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서성숙 설보경 성인선 신연정 양연선 양혜영 윤문순 이길순

기부자 명단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영섭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장혜란 전다정 전지혜 정슬기
조하은 최소린 최양서 최예린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황예린
4만원 박주은 배정환
5만원 강경옥 길소윤 김동원 김종남
김준오 김 진 김진경 김혜진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병철
이부호 장효정 천유림 최송희
허성희
6만원 장영훈 정동주 최광희
10만원 김동관 김장교 김종숙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장명헌
/함평대동교회
11만원 유선미
20만원 김남웅
100만원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5천원 황인아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민서
김양순 김요셉 김은혜 김혜미
류한나 박대종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양희 엄미자 이광승
이동기 이성령 이혜진 임동화
장연정 장영철 전계화 전명자
정창금 조윤희
2만원 강세윤 김형태 박혜숙 서성식
이마리 이영림 전옥순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인순
박재완 배정숙 이민경 이종권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정미영

교직원 및 가족

1만원 강신애 권관희 김다윗 김미영
김병수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지성
김지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서의영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윤혜진 이문자
이승영 이은영 이종석 이종우
이지희 임수아 임주희 장경순
장원경 전광선 전귀선 정보미
조철남 조형섭 최미영 하희수
허윤민 요시다고조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구자람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유진 김은실 김장호 김진순
문지예 민경은 박은주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정지용 최난영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3만원 권오섭 박성범 박인혁 박재진
방진희 신재윤 유다운 유수연
이상일 이소연 임경미 추연진
4만원 민찬양
5만원 김미숙 김성호 김원빈 김은영
김현동 신지수 유미나 이광삼
이은광 이호섭 장정순
6만원 권순범 이성아
7만원 김덕현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신금주 안정선 양혜경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소정
장성희 장인순 정순례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1만원 최지은
12만원 권경만
13만원 곽규상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3만원 이강동
25만원 임지영
30만원 최선희
50만원 김현광
100만원 김미선 반종원
150만원 장현진
1003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이다솜
임재택 차도영 최선영
2만원 김민경 이가연 진양희
3만원 권효진 김태연 김현애 문유나
변송이 오윤아 위소진 유정현
이유진 장나혜 장윤정 탁지혜
허성보
4만원 박미선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여미희
이지연
10만원 권정아 이인경 장수진 전안나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화영 안미희 차 건
20만원 김신덕
30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2만원 장은경
3만원 장석원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성서대학교회

9천원 김은미 장인순 황성모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1만6천원 정현숙
1만8천원 강유진 고경숙 김겸일 김덕현
김동준 김배열 김상은 김성진
김성철 김숙재 김신덕 김온순
김은혜 김인영 김일선 김정숙
김지영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현미 김혜진 김희현 남지영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이숙
박주형 박태수 서 훈 송인희
송형기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모 오종철 용정자 이길우
이대우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이정자 이주현 임성일 임환석
장홍림 전옥순 정나영 조병하
조영희 조정선 조현진 최미숙
최인숙 한성실 한충헌 허진순
2만원 변경선
2만7천원 김동수 유상호 유은주
3만6천원 강규성 김인자 박 선 박선하
박성환 박은유 오은주 유정선
유중엽 이경신 장근문 장진희
정명수 황서린
4만5천원 민윤옥 유형창 이봉호
5만4천원 김문응 김영헌 김원태 김현석
송재철 이숙영 조혜경 최선희
8만1천원 최강희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권태완 길용희
김동선 김순옥 박세건 박온오
이정임 진명순 최정권 한진호호
18만원 김웅기
22만원 김희진
1346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김초롱
오성군 이승학 이태학 정혜란
진재호 최영란 최영숙 한금순
/열매맺는교회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금촌성서교회
3만원 권순호 김덕규/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5만원 김옥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동두천성서섬김교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다빛교회/벧엘성서동우회
/삼일성서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일반

1만원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대성 김동우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범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민우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보경
김성래 김윤숙 김종환 문광철
박영미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안 홍춘호
3만원 김미수 김종환 손승현 윤미선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서미혜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20만원 유광석.민경홍
30만원 박순정
5000달러 김연수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
/무진인터내셔날/이음기업
/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도새기짱
/동신자원/바르고복된교회
/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어린양교회/우리교회
/한길교회(김오권)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
/상일교회/생명샘교회(성주)
/예일에드컬/천성교회
/평안교회(송파)/하늘누림교회
/행전교회/향기나무
10만원 (사)한국성서선교회/(주)바다나라
/(주)이레E&C이레디자인
/가성교회/구리성광교회
/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
/도봉성실교회/두암산업(주)
/상록교회/서부중앙교회
/성복중앙교회/소망교회
/오감발달연구소/철원제일교회
/청평교회
12만원 우리회
20만원 (주)소원기건/만나교회
30만원 한민제일교회
200만원 한국라이온스
280만원 경성교회

소계(20210721~20210820)
68,791,303
누계(20210301~20210820)
469,971,669